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권순희\*

## < 차례 >

- I. 서론
- II. 다문화주의의 수용과 교육
- III.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과 지도 사례
- IV. 결론

## I. 서론

세계화, 지구촌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탈북자(새터민)의 증가, 이주 노동자의 빠른 유입 등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원주의 국가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주류 인구집단(majority)이 아닌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은 뿌리 깊은 한국의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의 다양성 증가로 다문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적 대응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 사회의 인구 추산을 보면 2010년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치가 1,249,765명에 이를 것이며 이는 향후 총인구로 추정되는 49,219,537명의 2.54%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

\* 전주교대 교수, shkwon@jnu.ac.kr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진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이주 노동자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정세 속에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역사 등의 틀 아래 논의해야 할 복합적 문제이다. 교육의 문제를 현재라는 시간의 틀에서 교육 내용, 학습자, 교사 등의 변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교육의 현안 중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상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다. 분석적 접근은 학문적인 접근 방법 중 일부인 것이다. 교육을 바라보는 분석적 접근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교육의 문제를 현재성이라는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교육의 현재성이라는 시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필자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는 시도를 해 보았다.

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시간 구분을 초월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인식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만을 논의하는 시각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미는 우를 범한다. 교육이란 과거에 대한 치료, 현재에 대한 반응, 미래에 대한 개척, 대비, 축복이다.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교육 역시 이 문제를 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이나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교육 문제라고 인식할 때 해결책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거시적, 사회적 안목에서의 접근이다.

미시적, 개인적 안목에서의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필리핀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남초등학교 3학년 신○○학생은 필리핀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맛있고, 커서는 한국보다는 필리핀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단순히 현재의 교육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적 상황은 과거에 근거하여 현실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엄마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곧 신○○학생의 미래의 문제이며, 신○○학생의 현재의 문제는 곧 엄마가 안고 있었던 과거의 문제이다.

본고는 초등학교 교사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 사례를 살펴보았다. 교육의 현재적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과거에 대한 치료 차원과 미래에 대한 개척, 대비, 축복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교육의 현재적 반응에서 살펴 본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 기반을 두고 교육에 임했던 과거의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게 하고, 상대적 지식 이론이나 다양성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의 방향성을 혼란하게 하는 미래의 교육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본고는 다층적 연구 중 일부에 속한다. 다문화 자녀 지도 사례는 교사 면담, 학부모 면담과 학습자 면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필자의 연구 과제이다. 일부 연구는 완료가 되어 보고서로 제출되었고 일부는 연구 진행 중에 있다. 본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과제로 수행한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다문화 자녀를 지도할 준비가 안 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접하게 된다. 이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 II. 다문화주의의 수용과 교육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 태도는 크게 조영달 외(2006: 12)에서 제시하듯이 ‘용광로(melting pot) 정책’과 ‘샐러드 볼(salad bowl) 정책’의 비유로 살펴볼 수 있다. 용광로 정책이란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인종과 민족

은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샬러드 볼 정책이란, 민족이나 인종을 이루는 각 집단은 그 나름의 가치관과 지식의 형성 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때 그 사회 역시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발생했던 초창기에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주류 문화에 동일한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다문화 가정에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계층의 정체성은 동화정책에 의해, 혹은 지역적 고립에 의해, 때때로 제도적, 법적 제재와 소외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단지 생래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가 주도하고자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시민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변종’이나 ‘이탈’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인정,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의 분출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민족적 소수 그룹에 대한 배제와 탄압, 차별과 동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이용승, 2004 : 184~185). 이러한 요구는 온건한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이나 유고연방 등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될 때나 2005년 유럽의 무슬림 프랑스 폭동과 같이 간혹 폭력적인 양태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권순희(2006 : 226)에서는 용광로 정책과 샬러드 볼 정책과 같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 태도를 중심으로 주류 다문화주의의 교육과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교육, 조합적 다문화주의의 교육을 언급하고 호주의 경우는 1970년대 이전에 주류적 다문화주의의 교육을, 1973년대 이후에는 조합적 다문화주의의 교육을 채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 태도는 다문화주의의 교육관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존 J. 슈미트(노인영 역, 2000)는 21세기 미국 학교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더욱 보편화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다루고 교육과정 내에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미래

학교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경우는 동일하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욕구는 학생 개개인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광범위한 상담 지도의 모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개인적 측면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Ⅲ.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의 상담과 지도 사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도는 외국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관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상담으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상담은 상담심리학에서 교차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다. 교차문화적 상담은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국에서 교차문화적 상담은 주로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즉 소수민족 상담을 의미하였다(박외숙 1996 : 135). 교차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상담 및 심리 치료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가 1973년 APA Vail conference에서 제기된 이후 미국의 상담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는 다문화 상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상담 혹은 교차문화 상담의 이론들이 생성되고 미국의 상담학 전공 대학원에서 상담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설정되고 있다(한제희 2004 : 12).

다문화 상담은 동일 민족 내의 문화적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의 개념으로 다문화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 및 지도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상담 기법과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담 기법과 지도 방향을 제시할 때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avid Augsburger(1986)는 인간에 관한 세 가지 차원,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보편적 차원,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 유사성을 보이는 문화적 차원,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독특한 개별적 차원으로 구분한 Kluckhorn and Murray(1948)의 인식을 지지하면서 특히 문화적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이해를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것이 혼돈을 막을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에 언어적 차원을 추가하고자 한다. 언어는 문화와 사회, 민족 얼을 반영하고, 언어를 통해 사회 문화적 제반 사항에 적응 또 그것을 습득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언어적 차원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차원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 신분과 일반적 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담 기법과 지도를 말한다.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해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한국어 사용의 미숙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 문제와 다문화 학부모의 언어 교육에 관련된 상담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다. 개인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거나 보편적인 학생이라는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차원의 접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Tracey, Leong & Gridden(1986)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의 경우 상담에서 호소하는 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계 내담자들은 백인 내담자들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개인적,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적인 문제, 진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시아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이주민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의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토착민으로 기반을 이루면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는 차원이며 한 민족이나 집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변별력을 두지 않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의 뿌리를 인정하려는 소수 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 문화에 동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네 가지의 틀은 현재적 반응에 중점을 두고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현재적 반응에 대한 분석이 과거에 대한 치료와 미래에 대한 개척, 대비,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지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본고에서 살펴본 상담 사례는 연구자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한 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거쳐 연구자가 기록한 것과 교사가 기록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5명의 교사로부터 조사<sup>1)</sup>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다. 조사 대상 교사가 속한 학교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의 초등학교이다.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상담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요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은 그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충청도 금산 지역의 5명의 다문화 가정 학부모<sup>2)</sup>와의 면담으로 작성한 상담 사례가 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본고에서는 교사가 지도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교는 익명으로 밝히며 다문화 자녀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밝힌다.

2) 사례 제시에서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 1. 사회적 차원

### (1) 집단 따돌림 지도

집단 따돌림은 보통 교사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는 ‘피부색이 다르다’, ‘말을 더듬거린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등 문화, 언어적인 적응이나 외국인 부모에 대한 면박 등이 원인이 되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다. 집단 따돌림은 문제로 표면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의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

교사는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면 초조한 마음에 빨리 실태를 파악해서 즉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아이는 선생님한테 이르면 아이들로부터 앙갚음을 받거나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대해 전해 들은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뭐든 좋으니까 얘기해 봐”라고 말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의 경우, 특별히 표현력을 타고난 아이가 아닌 이상 교사의 애매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곤란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로웠겠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볼래?” 식으로 질문한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처한 상황을 함께 괴로워해 주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구나”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아이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귀 기울여 준다면 아이는 차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려고 사실을 추궁하는 데만 급급한 경향이 있는데, 먼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생활 전반으로 눈을 돌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전력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들에게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개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아이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출구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통을 치거나 심하게 꾸짖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조장하게 될 뿐이다. 한 사람씩 차분하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교사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을 털어 놓을 대상을 찾았다는 느낌에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선별하여 청와대를 구경시켜준 사건으로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교육청에서 군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초등학교를 상대로 청와대를 견학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A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교생(50명 아동 중 12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임)의 24%를 차지하였으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청와대 견학 간다는 사실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B학교의 경우는 전교생 중 1명만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 B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없는 줄 알고 지내다가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찾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1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선별하여 지도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행동을 요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과 동질감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다.

(사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청와대에서 초청한다는 공문이 왔다. 그 결과 우리 학교의 경우는 전교생 50명 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 12명을 보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2명의 학생들이 청와대를 간다는 생각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부러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옆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었는데 이 공문으로 인해 그 신분이 밝혀지면서 학생들로부터 “너희 엄마는 외국인이라며”라고 놀림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창 초등학교 사례).

이 사실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관내 은누리안(외국인 결혼가정)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등 121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방문과 경복궁 관람을 통한 문화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박○순 학무과장 인솔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2005학년도부터 ‘은누리안 가족 보듬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현재 100여 세대 이상의 관내 은누리안 가족들이 이웃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2006년 5월 22일자 ○도민일보).

신문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배려한 문화 체험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가시적 정책이 개인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다음 사례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입학 초기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파악하여 잘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학생과 달리 대우를 하였는데 이것이 도리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례)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전교생 앞에서 외국인 자녀들이 호명(외국인 자녀들은 손을 들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서럽게 운 적이 있어요. 자신들이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사실이 전교생에게 알려져 너무 창피하다는 말을 하였어요. 또한 그때 자신이 다른 한국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외국인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할 (전교생 앞에서 호명하여 창피하게 만드는 등)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삼갔으면 좋겠고... (다문화 가정의 중국인 정○○어머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어머니(혹은 외국인 아버지) 나라의 말을 배워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외국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집단 따돌림 문제

를 들어 이중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경우도 있었다.

(사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녀에게 일본 말을 가르치면, 아이가 학교에서 일본 말을 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일본인 ○○어머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짝 친구나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례)

1학년 모든 아이들이 낯설어 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철수(가명)의 경우 습관 형성에 시간이 더 걸렸다. 이철수는 단짝 친구와 친구의 언니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아이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면 좋다(○○초등학교 1학년 이철수(가명) 담임교사).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교사의 태도가 학급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사례)

학년 초에 정○○는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친구들이 외국인이라고 놀리면서 참지 못하고 울면서 친구들을 때리고 친구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인 내가 반 전체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 헤시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 친구들이 놀리는 일은 없어졌다(부천○○초등학교 정○○(가명) 담임교사).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학부모의 태도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방송에 나온 장수 초등학교 한 학생의 사례이다.

(사례)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수진이 하지만, 이제는 모범이 되는 학교생활로 표창장까지 받아 오게 되었다는

데……수진에게 이런 변화 가져다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필리핀  
 엄마 레오노라! 그녀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며  
 아이의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가 하면, 필리핀 모임의 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아-

피부색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효준이의 경우는 학부모의 태도 역시 소극적이다. 어린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다. 효준이의 경우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적 측면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

미술시간 인도에서 온 엄마 엘삼마의 얼굴을 유독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효준이. 그림을 그리는 효준이의 표정은 스케치북 속 엄마의 얼굴만큼이나 어두운데... 다른 피부색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 이라고~잠깐의 시내 구경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엘삼마와 두 아들! 엘삼마는 혹여나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시선들로 상처 받을까봐 아직도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아-

반면에 자기나 외국인 부모 외모를 한국 사람처럼 그림으로써 자신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유아의 사례(윤갑정, 고은정 2006 : 162)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 논의되듯이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상으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담 지도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구별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동화된 모습으로 학급 내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모아서 특별 행사를 주최하는 일은 사려 깊은 결정을 요한다.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급 내에서 교우 관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교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 (2)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지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 문제는 가정과 연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만 지도해서는 성과가 없다.

(사례)

정○○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행동이 거칠어 자주 다툼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바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지만 하교 후에 통제가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의 말과 행동에서 수정이 되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도벽이 있어 상담을 통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지만, 말을 돌리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하며 다음 날이 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부친○○초등학교 정○○(가명) 담임교사).

다음 사례에서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사례)

아이가 학교에서 불안한 모습을 가끔씩 보이곤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의 유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과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을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곤 했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 엄마가 일본인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늘 말해주곤 하였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영희(가명)는 우선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엄마가 일본 인인가 한국인인가와 상관없이 엄마가 영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희 어

머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영희와 이야기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이나 학교의 언니 오빠들에게 말하라고 교육하였다. 이로 인해 학년 초에 이러한 문제로 자주 울던 영희가 잘 울지 않게 되었으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례)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러다보니 학교생활에서 저절로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게 되는 듯하다. 다문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는 학생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본인이 지도한 영희(가명)처럼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반아동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회의 편견으로 자신들과의 의지나 노력 어부와는 상관없이 부담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관심이든, 아니면 편견이든 이러한 생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벽이 된다. (○○초등학교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급 내에서의 다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은 담임교사로 인해 충분히 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한 교사의 경험담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문화적 차원

### (1) 학습 문화

#### 1) 받아쓰기

받아쓰기 시험의 경우 학습의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말보다는 한글 사용에 문제가 있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1, 2학년 저학년

의 경우에 받아쓰기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고학년의 학업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

학기 초에는 받아쓰기와 수 체계(수학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방과 후 보충 학습을 하곤 했다. 하지만 금방 잘 따라오게 되었고 노력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학년 말에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오르게 되었다(○○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받아쓰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는 아래 사례와 같이 부모 이외의 친척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사례)

영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심으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왔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지도하곤 했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경우는 이모가 지도를 대신하였다(이모의 경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국문화에 많이 익숙해보였음). 그 결과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며 학년 초에 조금 힘들어했던 한글 공부(특히, 받아쓰기)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문자해득을 위해 받아쓰기 단계장을 따로 만들어 주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목표 점수를 정해주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학기 말에는 받아쓰기 점수가 80점까지 오르게 되고, 읽기 수준도 향상되었다(○○초등학교 1학년 황현지(가명) 담임교사).

## 2) 알림장과 숙제 지도

학습 관련하여 준비물(알림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준비물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사례)

경제적으로 부족한 편이 아니고 부모 모두 철수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 준

비물을 안 챙겨 오거나 과제를 안 해오는 일은 없음. 어머니가 아직 한국말에 서투르고 한국 학교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알림장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종종 있음. 철수가 어머니보다 학교문화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 비롯없이 대하기도 함(○○초등학교 1학년 이철수(가명) 담임교사).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점검해 줘야 한다. 학부모가 이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돌봐주지 않으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함과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전화나 알림장을 사용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통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사례)

조선자의 경우 알림장에 기입된 학습준비물이나 과제를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편이다. ……조선자의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교육에 관심이 없고, 어머니는 휴게소에서 판매에 종사함으로써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예방주사를 맞혀야 하는 등 학생에게 문제가 생겨서 부모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겨우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담임인 내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자 어머니는 아동을 교육적인 면과 생활 태도 면에서 봐 주고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알림장의 체크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알림장보려는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학교생활 안내를 하고 있다. 알림장의 중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사례)

알림장에 숙제를 적지 않아 아버지가 과제가 없는지 담임 교사에게 문의 전화를 하기도 한다. 조선족인 어머니가 현재 가출 상태… (남원 금지○○초등학교 6학년 김봉구(가명) 담임교사)

(사례)

제만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할 때는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였다. 제만

이의 어머니는 선생님을 많이 어려워해서인지, 상담을 요청한 적은 별로 없었으며 단지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간혹 알림내용이 있거나, 말씀 드려야 할 일이 있었을 때만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도 많았다. 아직은 어머니께서 한국어가 좀 서투르셨고, 나 또한 어머니의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은 부모님께 알려야 할 사항도 제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알림장에 써주어 어머니께 전달하였으며... (○○초등학교 2학년 전제만(가명) 담임교사)

### 3) 학교 행사 참여

국제 결혼한 대부분의 가정은 생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 행사에 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사례)

학급 및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행사 차원의 참여도 및 관심도를 보면 미흡한 편이다.……학교 행사의 경우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의 달(5월)의 프로그램들이 가족단위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참여하지 못한다(○○초등학교 1학년 조선자(가명) 담임교사).

부모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는 학생의 능동적 학습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교사는 그 중요성을 부모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 4) 학습 내용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급에 한둘씩 있을 수 있다. 교사가 그 나라를 배척하는 느낌이 들면 아이는 상처받게 된다. 독도문제나 일본 교과서, 중국 교과서 왜곡의 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가 교육의 장에서 논의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어머니가 일본인인 가정에서 자란 이하림(가명)과 이영희(가명)가 있는 반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수업을 했을 때의 일이다.

(사례)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두고 대립하던 때에 교사가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눈물을 글썽거림(○○초등학교 5학년 이하림(가명) 담임교사).

(사례)

수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로 인한 것이 많았다. 도덕 교과 등의 교과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나 6·25, 8·15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할 때는 무척 난감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일들을 말해줄 때 아이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때마다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으며 특히, 독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무척 힘들어 했었다 (저학년이다 보니 학급 아이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고학년 아이들이 영희에게 일본이 나쁘다면서 영희에게 화를 내곤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일본과 관련된 한국 역사를 가르치거나 독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수 있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보다 약소국가를 얘기할 때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친다. 교사가 객관적인 정보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도해야 하겠다.

(사례)

자신에게 일본인 과거 섞였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학년임에도 역사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했으며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업자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로 인해 학급 내 아이들은 영희 앞에서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 5) 다문화 교육 내용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학생의 부적응에 대해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못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각 교과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학생은 예술 체험에 의해 세계를 미적으로 느끼는 단계이고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음악, 세계 미술과 언어 지도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학교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1학년 아동의 경우보다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초등학교 1학년 이철수(가명) 담임교사).

다문화 가정의 문화 자존감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문화 조사를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조사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 6) 기본 학습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등 기본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 기본 학습 교육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상급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 교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급 학년에 진학을 해도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급 학교 진학의 어려움은 나중에 진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지도는 중요한 교육의 문제이다.

받아쓰기와 읽기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나 수학같이 생각하는 문제는 집중을 하지 못해 쉬운 문제도 잘 틀리고 배운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수업시간에 발표는 거의 하지 않으며 발표를 시켜도 자신감이 결여된 목소리

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과 말은 과장되게 표현한다(부천○○초등학교 2학년 정○○ 담임교사).

특히 중국인(조선족)의 경우 자녀의 영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중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중국인 엄마는 시골에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칠 좋은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시골일수록 학원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는 학원이 없어서 학습지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보내기가 어렵다. 그 문제가 제일 어렵다(일본인 결혼 이민자 ○○시 ○○).

## (2) 가정 문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국제 결혼한 부모의 모국에 가 봄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

학교에서 가족 신문 만들기를 했는데 유치원 때(7살) 중국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가족신문에 사진을 붙였다. 엄마랑 어릴 때 찍은 사진도 붙이면서 자랑하였다(○○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담임교사).

자신의 어머니가 조선족임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초등학교 6학년 김봉구(가명) 담임교사).

어머니의 출신 덕분에 어려서부터 중국을 일 년에 한 차례씩 여행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였으며 자신이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친구들도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동이 경

협하고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경향이 강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교사에게도 중국어나 중국에 사는 외갓집 얘기를 틈틈이 하기도 한다(○○초등학교 4학년 김서희(가명) 담임교사).

주말(주 1회)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3~4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인 자녀들이 중국어를 습득함으로써 다른 또래들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알게 하여 자부심도 키워주고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게 한다. 1년에 한 두 번씩 자녀들을 중국에 보내 중국 및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배운 중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어 준다(조선족 결혼이민자 정○련).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조언해 준다.

학교 행사의 경우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의 달(5월)의 프로그램들이 가족단위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 행사에 부모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동의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행사 참여에 대한 문제를 아동 지도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듯하다(○○초등학교 1학년 조선자(가명) 담임교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학교 활동에 협조적이고 예의바른 분들이었으며 특히 어머니가 영희 교육을 위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선행 지도를 열심히 하였다. 영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심으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왔다(○○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아버지는 학교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다(○○초등학교 2학년 전제만(가명) 담임교사).

아이가 한글 받아쓰기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엄마로서 가르쳐주고

싶으나 나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도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므로 한글을 모른다(필리핀 결혼이민자 지○○코 칼○○).

생각보다 결혼이민자의 교육열이 매우 높으며 성격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나 시댁 식구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 특히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례에서, 아버지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버지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 보면,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는 외국인 어머니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단위로 교육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 자녀는 가족 단위 위주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학생만의 상담 및 지도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매 결연 방법으로 가족단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국제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있다.

(사례)

현지의 경우, 지도하면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점은 학교 생활면이나 학습면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물론 어머니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구어)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도 시에 잘 따라왔다.

그러나 현지의 경우에서도 보듯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인 것 같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결손 가정이 되고, 결국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아이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까지 파급 효과가 크다(○○초등학교 1학년 황현지(가명) 담임교사).

김봉구 어머니는 중국계 조선족으로 2년 전 기출을 한 상태이다. 아버지

는 전기공사일을 하고 있고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경우에도 육체노동으로 피곤하여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봉구는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냇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현재 가출 상태여서 빨래를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인지 봉구의 복장은 지저분할 때가 자주 있다(○○초등학교 6학년 김봉구(가명) 담임교사).

다문화 가정의 결손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문화적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 가출로 인해 결손가정이 되면 그 피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 (3) 참여 문화

취학 전 만약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학했다면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견해가 있다.

조선자는 ○○ 사립 유치원에서 1년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고 입학한 상태여서 다문화 자녀가 겪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학습부진의 문제는 거의 없다(○○초등학교 1학년 조선자(가명) 담임교사).

김영수는 ○○ 사립 유치원에서 3년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고 입학한 상태여서 다문화 자녀가 겪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학습부진의 문제는 거의 없으며 한자도 조금은 익혀 입학했다.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담임교사).

결혼이민자와의 면담에서 학교 교과서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교과서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답변을 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한글을 배우지 않고 들어갔다면,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중국인 결혼이민자 정○련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이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위의 차별화

된 시선 때문에 자녀들이 무시 당할까봐 어렸을 때 한글 교육을 많이 시켰고 한국어 표준어의 습득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 주었다고 한다. 외국인 자녀라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면하기 위해 넉넉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등 필요한 학원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외국인 엄마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엄마가 농촌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있다. 다른 엄마와 달리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던 엄마가 제2외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다문화 자녀를 상대로 한 한국문화 체험 교실에 즐거워하고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였다고 반응하였다. 여름 방학 일주일 동안 도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한국문화 체험 교실에 저학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문화 체험교실에 출석하는 비율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 3. 언어적 차원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배경은 특수성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처럼 계속될 수 있는 소수 민족 세력은 미미하고 다문화적 배경이 혼혈인 경우가 다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말하기·듣기 등 구어 능력에 비해 쓰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사례)

엄마인데 왜 한글을 몰라?

캄보디아에서 온 츠스레이마오의 아무진 딸 지애.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지애는 아직 엄마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츠스레이마오는 어린 딸의 불만 섞인 투정에 적잖이 상처를 받지만, 엄마 역할

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데...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아-

(사례)

친구들 엄마와 다른 엄마 모습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법도 한데 수진이 생각은 전혀 달랐다. 수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언제나 상냥하고 맛있는 음식도 잘 만들고, 게다가 영어까지 잘 하는 세계 최고 엄마다. 학교 특별활동 영어시간에 수진이 엄마가 보조 강사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다. 지난해 여름 엄마를 따라 필리핀에 가서 놀다 온 것도 수진이의 자랑거리다. 담임교사 박여주(여·27)씨는 “엄마가 외국인이라 엄마를 대할 때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다” 고 말했다. 박형주(57) 교감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느냐” 며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떼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 이라고 말했다. -2006년 5월 4일 자 문화일보, 음성원 기자, 전북 장수초등교 ‘아버이 날 편지 쓰기’기사 중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국제 결혼한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사례)

사회 속에 녹아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중) 언어를 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가정의 아이들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더 쉽게 친밀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초등학교 1학년 황현지(가명) 담임교사).

하림이는 기초단계이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가르쳐주는 일본어를 연습하며 일본을 동경하고 있다. 몇 년 후 일본에 갈 계획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림이에게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일본에 갈 때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칭찬한다(○○초등학교 5학년 이하림(가명) 담임교사).

일본어도 조금씩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다 보니 학급 내 아이들과는 사

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 엄마가 일본인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늘 말해주곤 했었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영희는 우선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자연스레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엄마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와 상관없이 엄마가 영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영희와 이야기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이나 학교의 언니 오빠들에게 말하라고 교육시켰다. 이로 인해 학년 초에 이러한 문제로 자주 울던 영희가 잘 울지 않게 되었으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1970년대 독일로 이민 가서 독일인과 결혼하여 살던 한 한국인이 큰 아이에게는 독일어만을 교육하였다가 15년 이상 지난 후 늦둥이 셋째 아이에게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사례(성상환, 2006: 86~87)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는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소수민족 언어를 유지하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농촌에 사는 한 결혼 이민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이야기 한다.

(사례)

시골이라 농사짓기 바빠서 가르칠 시간이 없다. (일본)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칠 시간이 없다.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이야기 한다. 옛날에 외갓집에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본말은 전혀 할 줄 모른다. 나는 한국에 시집왔으니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본말이나 일본 풍습 같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이 일본말 가르쳐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일본인 결혼 이민자 ○○시 ○○).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엄마에게 가르쳐주는 사례도 있다.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대학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서인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잘 몰랐던 한국어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

섰다. 얼핏 한국어는 오히려 제만에게 배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제만이가 배웠던 한국어를 오히려 어머니께 가르쳐 드린다는 이야기도(○○초등학교 2학년 전제만(가명) 담임교사).

일본인 결혼이민자(45세) 임○○와 중국인 조선족 결혼이민자(37세) 최○○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있다고 생각 하는지 질문을 하였다. 두 사람 모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접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말하기, 듣기는 잘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쓰기의 어려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니 대답은 회의적이었다. 농사 일이 매우 바쁘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쉽게 임무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농사철이 지난 겨울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그 시기를 활용하여 국가가 무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를 정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이나 새터민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지만, 영어권에서 유입된 외래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민자들은 외래어나 외국어 외에도 어려운 어휘를 접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오는 통신문의 경우는 이해하기 쉽지만, 간혹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학교 통신문 이외 기타 다른 서적의 어휘 등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아, 서적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은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에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 4. 개인적 차원

##### (1) 결혼 가정

김영수(가명)의 어머니는 중국계 조선족이다. 어머니는 김영수가 5살 때 집을 나가서 서울의 모텔에서 카운터 일을 보고 있다. 지금은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마을의 빈집에서 생활하며 집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김영수(가명)는 어머니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행동이 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3월 중순경에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김영수는 친구들에게 자기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학교에서 가족 신문 만들기를 했는데 유치원 때(7살) 중국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가족신문에 사진을 붙인 적이 있다. 엄마랑 어릴 때 찍은 사진도 붙이면서 자랑하였다(전북 ○○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담임교사).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빈공간이 드러난다.

(사례)

아버지는 노동일로 공사장 등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는 관계로 아침에 일찍 밥을 차려놓고 나간다. 아버지는 김영수가 자고 있을 때 집을 나선다. 김영수는 알람시계 소리에 잠을 깨서 아침밥을 먹고 등교한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밥을 차려먹는다. 언젠가는 얼굴 여러 곳에 화상을 입어 이유를 물었더니 저녁밥을 먹으려고 햄을 볶다가 기름이 튀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내용을 듣고 마음이 아팠으며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알려주었다 (엄마나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아는 교사로서는 요리 방법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전북 ○○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담임교사).

결혼 가정의 경우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어렵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가 낮아 어려움이 많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강좌 등 학부모를 상대로 특강을 개설하는 방식이나 가정끼리 멘토를 맺는 방식 등을 취하여 결혼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2) 급식 지도

일본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영희(가명)는 평소에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없었다.

(사례)

평소 가정에서도 한식 위주로 된 식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식사 예절도 바르고 잔반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담임교사).

그러나 러시아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정○○의 경우는 채소류를 잘 먹지 않으려 하였다.

(사례)

채소류는 잘 먹지 않으려 하고 육류와 튀김, 면류를 좋아한다(부친 ○○초등학교 2학년 정○○ 담임교사).

다음은 필리핀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철수(가명)의 편식을 지도한 사례이다.

(사례)

학교 급식 중 생선구이와 스파게티만 먹을 수 있음. 설득하면 김치도 조금은 먹지만 그 외의 음식은 모두 거부 반응함……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고향이 섬나라(필리핀)이므로 주로 해주는 음식이

생선요리이고, 한국음식은 김치와 몇 가지를 빼고는 먹어본 것이 거의 없었다. 이철수(가명)는 토마토를 가장 싫어하고, 바다에서 난 음식들과 어머니가 직접 해 준 음식에는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

편식을 고치기 위해 다소 강압적이긴 하지만 모든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도했고, 때로는 처음 보는 야채라며 먹지 않을 경우 스파게티의 한 종류나 다름없다고 말해 주어 그 야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먹도록 시도했다. 한 번 먹어본 음식은 다음에는 조금 덜 거부했으며 생선과 스파게티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이 한두 가지 더 생겼다(○○초등학교 1학년 이철수(가명) 담임교사).

편식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 문화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편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체질에 따라 몸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편식을 지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편식을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지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 IV. 결 론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는 개인의 개성과 성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상담을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도 이 때문이다. 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교사 면담 사례에 근거하여 다문화 자녀 지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는 다문화 요인보다는 결손 가정적 요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

들은 계획된 다문화 교육보다는 한국인 가정의 학생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자연스럽게 학급 전체 학생들과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을 택한다는 반응이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등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지도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기법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사보다는 또래와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동반한 상담 지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가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끌어안아 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적 특성이나 자율성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이 요구하는 집단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그 자녀와 함께 지내는 학급의 다른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문제이고, 과거에 대한 치료, 현재에 대한 반응, 미래에 대한 개척, 대비, 축복의 문제이다.\*3)

\* 본 논문은 2007. 6. 13. 투고되었으며, 2007. 7. 8.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6a), “문화 텍스트적 관점의 번역 동화 이해 교육”, 『독서연구』 15호, 한국독서학회.
- 권순희(2006b),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서명옥(2006c), “창의적 표현 능력 개발을 위한 국어과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 방안- 문화 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번역 동화 이해 및 감상 표현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계현(2000), 『카운슬링의 실제』, 학지사.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윤(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참여의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1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박성희(2003),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지사.
- 박외숙(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
- 변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이슈페이퍼 보고서.
- 설기문(1993),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편, 학생연구 21.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 성상환(2006), “다문화 시대의 자녀 교육-독일의 한독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연구 발표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교육인적자원부.
- 스와 고이치 외 편저, 오근영 역(2004), 『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대화의 기술』, 양철북.
- 양수경·권순희(2007), “세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연문희(1997),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양서원.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오인수 외(2005), 『상담으로 풀이가는 교실이야기』, 교육과학사.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이경호(2002),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이시용 외(2003),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이원희(2006), “학교 중심의 지역 사회 재편”, 초등 교육의 혁신 방향과 전략, 2006년도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조영달 외(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과제2006-이슈3 보고서.

존.슈미트 저, 노안영 역(1999), 『학교 상담』, 학지사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재희(2004), “한국 문화와 다문화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5, 한국목회상담학회.

Atkinson, D. R., Morten, G. & Sue, S. W.(1989),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3rd ed.), Dubuque, IA : William C. Brown.

Bandler, R., & Grinder, J.(1975), The Structure of Magic I : A book about language and therapy, Santa Clara, C.A.:Penguin.

Castles, S.(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From Migrant Worker to Transnational Citizen, London : Sage.

Dewey, J.(1934), Art as Experience, A Perigee Book.

Gollnick, D. M.,& Chinn, P. C.(1994),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4th ed.), NY :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Singh, B. R.(1994), Group identity, individual autonomy and educ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al Studies 20(1), pp.87-103.

UNSW(2002), Pocket Statistics.

Vertovec, S(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 222-42.

Vertovec, S(2001), "Transnational Challenges to the New Multiculturalism", Paper presented to the ASA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t of Sussex, 30 March - 2 April 2001.

부록 1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직접 지도한 교사의 상담 지도 사례 중 일부<sup>3)</sup>

○○초등학교

##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적 사항

조선자(가명) : 1학년(나이 : 8세), 성별(남), 선수학습(○○사립유치원 1년)  
 가족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중국계 조선족, 20대 후반),  
 내(조선자), 남동생 1명

농업에 종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한 마을에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실업자임. 어머니가 휴게소에서 판매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남동생의 경우도 조선자가 다니던 ○○사립 유치원에서 종일반에 다니고 있고, 조선자의 경우도 4시까지 학교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조선자와 남동생은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할머니 택으로 귀가한다. 어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오면 어머니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간다.

##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상담) 사항

## ① 문제행동 관찰

○ 학급 및 학교생활 차원

- 학급 및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행사 차원의 참여도 및 관심도를 보면

3) 지면 관계상 교사의 상담 지도 사례의 일부와 학부모 면담의 일부를 실는다. 전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보고서 pp106~167 참고.

미흡한 편이다. 조선자의 경우 알림장에 기입된 학습준비물이나 과제를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편이다. 조선자는 밖에서 실내화를 신고 나가서 놀기도 한다. 실내화가 너무 더러워졌으니 빨아서 다시 신고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실내화를 아예 안 신고 맨 발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

-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닌 듯하다. 또한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예방주사를 맞혀야 하는 경우도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겨우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교사인 나에게 일처리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담임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

학교 행사의 경우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의 달(5월)의 프로그램들이 가족단위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 행사에 부모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동의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행사 참여에 대한 문제를 아동 지도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듯하다.

#### ○ 교우관계 차원

-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바빠서인지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주는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자선생님을 선호하고 특히 치마 입은 여자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리고 조선자는 선생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슬그머니 선생님 뒤로 오거나 선생님을 묵묵히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조선자는 항상 눈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아동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단지 아동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다.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손, 학습도구, 준비물, 윗옷자락 등등)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습관이 있는 편이고 같은 반 아이들을 한번씩 툭툭 치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 ○ 수업관련 차원

- 조선자의 어머니가 조선인인 관계로 조선지는 가정생활에서 완벽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조선지는 ○○ 사립 유치원에서 1년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고 입학한 상태여서 다문화 자녀가 겪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학습부진의 문제는 거의 없다. 다만 주의산만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 면에서 저조하다. 학업 성취수준이 떨어진다.

## ② 지도 과정

## ③ 상담(지도) 방법 권장사항 및 상담 전략

- 조선자 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동을 교육적인 면과 생활 태도 면에서 봐 주고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알림장의 체크도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알림장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학교생활 안내를 하고 있다. 알림장의 중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학교 행사에 어머니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조선자 혼자 참여하게 하거나 외톨이가 되게 하기보다는 교감 선생님과 결연(소인수 학교라 가능)을 맺어 주는 형태로 행사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 조선자의 경우 주의 산만으로 수업에 제대로 임할 수 없었다. 이점을 고치기 위해 방과후 보충 학습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교에서는 하교시 스쿨버스의 1회 운영으로 4시까지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화, 금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 방과 후 보충 활동을 실시하였다. 조선지는 1:1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방과 후 보충 학습 활동을 매일매일 운영해 주기를 소망하였다. 하지만 시골 학교의 경우 과중한 업무(연구부, 특기적성 업무, 특기적성활동강사)로 인해 조선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경미했으며 갑작스

런 출장관계로 보충 학습 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이가 실망스러워하고 나와서 학습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학생 지도는 일관되고 지속된 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관심은 내 사이클에 맞춰 남는 시간 동안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요구에 맞춰진 활동을 전개할 때 학생과의 신뢰가 생기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학생은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 라는 자존감이 생김을 말이다.

- 조선자는 책가방이 자주 비어 있었다. 그래서 ‘내일 책 가지고 오면 선생님은 조선자 덕분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숙제 확인도 마찬가지로 지도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아이는 아침에 등교해 교실에 내가 있으며 “오늘 숙제 해 왔어요. 책 가져 왔어요.”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교사의 관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신뢰의 확보가 제일 먼저인 듯하다. 많이 안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아동의 가정 생활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는 것이다. 항상 아이에게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의 대화가 가장 필수적인 전략인 듯하다.

#### ④ 지도 소감

- 조선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말(한글)에 전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족이기에 가정 생활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글이 습득되고 유치원을 통해서도 한글이 습득되었기 때문에 교수·학습면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연령차가 크고 생계가 곤란한 기초수급자 대상 가정이면서 특히 가정의 직업이 없는 관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자의 어머니가 직접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든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둘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듯하다. 아이는 태어날 때 자기 밥

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방치된 양육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책임감과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결혼에 임하고, 자녀를 낳고 적극적으로 소신있는 태도로 생활해 나가야 그 자녀도 건강한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아동으로 자라날 것이다.

### 3.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 보낼 때 넣고 싶은 내용

- 1학년이기에 그리고 국어사용능력에 어려움이 없기에 매일 알림장을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입학식 날 '1학년 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였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팸플릿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학교생활 안내 팸플릿보다는 직접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라는 말을 학년 말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속에 넣고 싶다.

- 하루에 한번 '○○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볼에 뽀뽀해 주세요 그런 후에 숙제와 학습 준비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써 주고 싶다.

부록 2 학부모 면담 사례 중 일부

2006년 9월 9일 충남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

\* 제보자 : 일본인 결혼 이민자 하야시 준코(임순자,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고, 일본인 여권과 외국인용 ID카드를 가지고 있음), 중국인 결혼 이민자 최경순(조선족)

임순자 씨의 자녀는 5학년(남), 4학년(여)

최경순 씨의 자녀는 1학년(여)

1. 질문 : 자녀의 학교 입학은 어떻게 했나?

답 : 면에서 통지서가 와서 했다. 특별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통지서대로 입학했다.

2. 질문 :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은?

답 : (일본) 한글 쓰기가 어려웠다. 또, 아이가 모르는 말을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늘 사전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내가 사전을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애가 찾기 싫어하면 내가 같이 찾아줬다.

(중국)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보내기가 어렵다. 그 문제가 제일 어렵다.

3. 질문 : 교육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는가?

답 : (일본)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얻는다.

5학년짜리 아들은 성격이 쾌활해서인지 친구를 잘 사귀는데, 4학년짜리 딸은 친구들과 사귀기 어려워한다. 딸은 왕따 문제로 원형탈모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나중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인 엄마를 뒤서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애 반 분위기가 그렇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한 번 반이 결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으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원래부터 반이 이상했다.

4. 질문 : 자녀에게 일본어나 중국어 교육을 시키는가?

답 : 시골이라 농사짓기 바빠서 가르칠 시간이 없다.

(일본)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칠 시간이 없다.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이야기 한다. 옛날에 외갓집에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본말은 전혀 할 줄 모른다. 나는 한국에 시집왔으니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본말이나 일본 풍습 같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이 일본말 가르쳐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들이 숙제로 일본 결혼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좀 부끄러웠다. 내 탓이다.

(중국) 나도 가르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애가 아직 어려서 외갓집이 외국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사는 마을도 다 한국어를 쓴다. 그래서 아이가 중국에 다녀와도, 그냥 외갓집 다녀왔다고 생각하지, 특별히 중국이란 개념이 없다.

5. 질문 : 한국문화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답 : 시부모님한테서 배운다.

6. 질문 : 여기서 뭐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느꼈나?

답 : (일본) 명절문화가 다르다. 세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일본식은 안 가르친다. 일본은 깔끔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대충대충’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일본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도 여기서는 되는 것 같다. 근데, 일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중국) 인사하는 게 어려웠다. 여기 사람들은 싹싹하게 인사를 잘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딸한테는 인사를 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딸은 인사를 잘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경어를 쓰지 않아서 남편이 늘 불안해한다. 남편은 어른과 내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미리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와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달라고 한다.

7. 질문 : 숙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답 : (중국) 친척(동서)을 통해 해결한다. 1학년 딸이 ‘라로 끝나는 말’ 스무 개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몰랐다. 한국말에는 라로 끝나는 말이 없고, 전부 외래어만 있었다.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서했다. 근데, 지금은 1학년이라서 별로 어려움이 없다. 앞으로 학년이 높아지면 걱정이다.

8. 질문 : 여기서 같은 고향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는가?

답 : (일본) 금산에만 통일교 국제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이 30여명 된다. 금산교회를 중심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중국) 없다.

9. 질문 : 가정 통신문은 이해하는가?

답 : 어려운 말이 없으면 대강은 이해한다. 그런데, 적혀있는 게 뭔지 몰라서 준비를 못해 줄 것 같아서, 문방구에 가서 물어보고 준비했다.

10. 질문 :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안내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답 :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자녀랑 어떻게 대화해야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직 사춘기가 안 되었지만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11. 질문 : 현재의 교과서에는 특별한 불만이 없나?

답 : (일본) 특별히 기억나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중국) 수준이 너무 높다. 나도 중국에 있을 때, 1, 2학년 때는 교포학교에 다녔는데, 그 때 배우던 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너무 수준이 높고 진도가 빨리 나간다.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입학하면 따라가기 어렵다.

12. 질문 : 왕따 문제는 없었나?

답 : (일본) 반이 이상해서 그렇지 일본인 엄마를 두었다고 왕따를 시키지는 않는다.

(중국) 애를 옷을 예쁘게 입혀 보냈더니 왕따 같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다.

13. 질문 : 반일 감정 등으로 힘들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았나?

답 : 특별히 그런 거 없다. 독도는 누구 땅이어도 상관없다. 사람들은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어를 배웠다고 일본어로 이야기하려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내 친구 중의 하나는 “일본어를 하면 왕따 당할까 걱정된다면서, 일부러 자녀한테 일본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런 걱정은 없고, 다만 시간이 없어서 일본어를 못 가르쳐주고 있다.

14. 질문 : 한국 교육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답 :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대학 안 나와도 기술 좋으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문제가 된다. 나는 자녀를 대학까지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다.

15. 질문 : 안내문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 :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국어 어려운 말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써 줬으면 좋겠다.

## &lt;초록&gt;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권순희(전주교대)

국제 결혼 가정 자녀,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는 추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다문화 가녀를 접하여 지도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자녀를 지도한 교사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상담 사례는 다문화 자녀를 지도한 초등학교 교사 15명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다. 다문화 자녀가 많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밖에도 다문화 자녀의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 이민자 면담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면담 사례에 근거하여 다문화 자녀 지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자녀 문제는 다문화 측면보다는 결손 가정적 요소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계획된 다문화 교육보다는 한국인 가정의 학생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자연스럽게 학급 전체 학생들과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을 택한다는 반응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지도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기법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사보다는 또래와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동반한 상담 지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가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끌어안아 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 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적 특성이나 자율성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이 요구하는 집단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그 자녀와 함께 지내는 학급의 다른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핵심어】** 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상담, 면담

<Abstract>

## Examples of Consult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Kwon, Soon-he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immigrants are increasing in Korea. As the results, racial, national, and cultural diversity at elementary school is also increasing. At school teachers are teachi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ithout preparednes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is study, examples of consult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ere studied to provide a guidance to teachers.

Examples of consultation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5 teachers having experiences of teachi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e province of Kyunggi-do, Chungcheong-do, and Jeolla-do wher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bundant. Also examples of consultation for 5 foreign mothe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examples, directions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suggested as following.

First, troubles suffered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re caused by a broken home and financial difficulty rather than multicultural difficulty. Teachers should trea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just like those of Korean family in a natural manner rather than intentional multicultural education manner.

Second, consulting methods for teacher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uld be developed, because the role of teacher is very important at elementary school.

Thir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uld receive education from home as well as school for synergistic educational effect. Therefore national and social counterplans should be considered.

Fourth, diverse cultural experiences and continuing consultation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Finally, re-education are necessary for teachers to make them understand multicultural education.

**[Key words]** culture, understanding,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children, consultation, interview